

&gt;&gt;&gt; SK C&amp;C 윈드스키 동호회

## 물과 바람과 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람을 타고, 물을 타고, 눈을 타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

바로 SK C&C의 윈드스키 동호회다.

SK C&C의 윈드스키 동호회(회장 박규철)는 여름에 윈드서핑,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를 타고 겨울에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는 익스트림 스포츠(Extreme Sports)를 추구한다. 윈드스키 동호회는 SK C&C 사내 동호회 중에서 농구 동호회와 함께 가장 먼저 시작한 동호회로, 지난 1997년 6월 10명의 회원으로 출발해 이제는 50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회사의 지원도 적극적이다. 회사에서는 동호회 활동을 보다 활발하기 진행할 수 있도록 사이트 운영을 지원하고, 매달 소요되는 동호회 운영 경비도 상당부분 지원해 주고 있다.

윈드스키 동호회의 가장 큰 매력은 호수, 설원과 같은 대자연속에서 동호인이 모두 함께 같이 호흡하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활동 속에서 동호회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드넓은 호수와 설원처럼 마음도 넓어진다는 설명이다.

일반인들은 수상스키는 잘 알고 있지만 웨이크보드(wakeboard)는 대체로 생소해 한다.

웨이크보드는 스노우보드처럼 보드를 물위에서 타는 것으로, 데크에 두발을 바인딩으



로 고정하고 보트에 연결된 로프와 핸들을 잡고 약 시속 35~40km로 달리는 보트에 끌려가면서 웨이크(wake: 보트가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파도)를 타는 스포츠다.

웨이크보드는 수상스키와는 달리 슬라럼(slalom: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모양)을 하면서 웨이크를 발판으로 점프, 롤, 랠리 등 트릭(기술)을 할 수 있어 더 큰 스릴을 느낄 수 있다.

윈드스키 동호회 모임은 여름시즌과 겨울시즌에 각각 6회씩 1년에 총 12회의 행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연습해 왔던 부분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기도 하고 회원 간에 친목도 다진다.

지난 2005~2006년 겨울시즌은 올 2월에 마감했다. 올해 여름시즌은 5월 27일 입수식을 시작으로 지난 6월 6일 두 번째 모임을 청평에서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는 올해 가입한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웨이크보드 초보강습을 실시했으며, 게스트로 내부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함께해 더욱 좋은 시간이 됐다.

“2007년은 저희 윈드스키 동호회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막강한 스키 및 보드 실력을 가진 신입사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스키를 탔다는 이형현 사원, 스키를 신고 용평 최상급에서 뛰어다니다 못해 날아다니는 민혜정 사원, 이번 신입사원들 가운데 스노우보드 강습으로 ‘송강사’로 알려진 송윤상 사원 등 정말 기대되는 회원들이 많다고 동호회 박규철 회장은 귀땀한다.

윈드스키 동호회에 내에는 막강한 실력을 소유한 전문(?) 강사들도 있다.

동호회 스키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NI영업팀 이종훈 차장, 자금팀 신재영 과장, 국방\_SOC사업팀 김윤혁 과장이 바로 그들이다. 스노우보드 전문 강사로 활약 중인 솔루션사업팀 허준명 과장, 제조·서비스사업팀 김경국 대리, 에너지사업1팀 신준성 대리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들은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배우고자 하는 회원, 자세 교정이 필요한 회원, 칼 같은 카빙을 구사하고 싶은 회원들을 위해 모임 때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지도를 하고 있다.

윈드스키 동호회는 동호회 활동뿐만 아니라,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전 임직원 모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를 타지 않아도 행사에 참여, 가족 손을 잡고 시원한 강바람을 쐬며 보트도 타고 강렬한 태양 아래서 태닝도 하면서 자연이 주는 여유로운 주말을 맛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호회 회원인 NI사업팀의 이종훈 차장은 “현재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층 위주로 회원이 편성돼 있는데 앞으로는 나처럼 40대와 50대 직원들도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